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의 系譜를 통한 美的 特性 研究⁺

朴惠媛* · 金汝淑

昌原大學校 衣類學科 助教授*, 昌原大學校 衣類學科 副教授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ittle Black Dress through Fashion Trend from 1920 to 1990⁺

Hye Won Park* and Yeo Sook Kim

Assistant Prof. Dep.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confirming the aesthetics of 'little black dress' as one of the important items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lives. Through the work, what is the aesthetic value that women really needed can be found.

This research was processed by literal material with fashion photos, fashion books and articles which were related fashion trend from 1920 to 1990.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birth period of little black dress was 1920s to 1930s. Freedom and modernity was represented by little black dress. European elegance and American smartness were expressed on this item through 1950s to 1960s. In the end of 20th century, 'little black dress' has diversity just like fashion trend.

As the aesthetics characteristics of little black dress, ① contemporary woman's identity through chic and modernity ② strong power of passing image ③ dual values of temptation and tattoo were found.

Therefore this research can be useful to extent the meaning of little black dress in fashion study and to recognize contemporary women's needs.

I. 서론

일반적으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샤넬의 1926년 작품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란 슈미즈(chemise)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에 기초로 한 여성용 의복을 통칭한다.¹⁾ 1920년대에 샤넬에 의해 등장한 리틀 블랙 드레스는 파투, 폴리뉴 등에 의해 유행되어

이후 칵테일 시간에 적당한 옷으로 정착했으며 여성들의 모든 의생활에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다.²⁾

현대 패션의 흐름 속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실제로 이를 탄생시킨 샤넬의 작품으로서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일상의 아이템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미적 특성이 분명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20년대 처음 등장한 이

⁺ 본 연구는 2000년도 창원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후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배적으로 패션의 흐름 속에 그 위치를 견고히 해왔다. 바지의 유행, 캐주얼웨어와 유니섹스 스타일의 열풍 속에서도 리틀 블랙 드레스는 고유한 영역을 지켜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喪服의 색인 검정을 기본으로 형태적으로도 가장 단순한 無裝飾의 옷인 리틀 블랙 드레스의 흐름을 패션 트렌드 속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 여성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 리틀 블랙 드레스의 미적 특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확인작업은 리틀 블랙 드레스가 오랫동안 중요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조형성 내지 미적인 독창성을 밝혀냄으로써 현대 여성이 원하는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현대 복식의 원류로서 1920년대 기능적 의복의 출현에 대한 연구나 샤넬에 대한 연구 속에서 일부 리틀 블랙 드레스가 연구³⁾되었지만 기능성과 현대화 과정, 디자이너 연구의 부분으로 취급되었고 2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아이템으로의 독자적 연구와 그 미적 특성을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계보를 패션 문화사의 흐름에 맞추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적 특성과 이미지를 색상의 상징적 가치와 현대성의 표현 및 이미지 전달력, 다면적 가치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1926년 리틀 블랙 드

레스의 탄생 이후 1990년대까지의 패션 흐름 속에서 등장한 리틀 블랙 드레스의 통사적 계보를 포함하며 미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패션전문 서적, 패션정보지, 색채 및 상징에 관한 문헌 및 관련논문의 내용과 패션사진 자료를 참고로 문헌연구 하였다.

II. 리틀 블랙 드레스의 계보

1. 탄생기 : 자유와 현대성의 표현

리틀 블랙 드레스는 슈미즈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을 기초로 한 검은색 여성용 의복으로(그림 1) 그 모태는 코코 샤넬과 장 파투였다⁴⁾(그림 2). 1926년 10월호 미국 보그지는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대해 칼라도 단추도 장식도 아무 것도 없는 심플함을 대량생산되고 있던 포드 자동차와 비교하여 '샤넬의 사인이 틀어간 포드로 모든 여성의 취향에 맞는 유니폼이 될 것이다'⁵⁾라고 표현했다. 장 파투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현대 패션사에서 여성을 위한 스포츠 웨어의 시작으로 인정되는데 파투는 스포티(sporty)와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열망을 의복에 표현하고자 했다(그림 3). 단순하고 검은색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어떻게 대중을 위한 기본 의상으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 보그지는 이 드레스가 의미하는 자유정신 때문으로 예



<그림 1> 칼 라거펠트에 의해 제작된 1926년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11)



<그림 2> 파투의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은 모델과 파투
(출처 :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p.190)



<그림 3> 파투의 스포츠 웨어
(출처 :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p. 191)

상했고 그것은 적중했다.⁶⁾

'셰헤라자드는 쉽다. 그러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어렵다(Scheherazade is easy. A little black dress is difficult)'⁷⁾라고 말한 샤넬이 원했던 것은 현대적인 그리고 엘레강스한 여성에게 어울리는 검은색의 표현이었다. 폴 푸아레의 기발함과 과잉장식을 제거하고 오히려 절제된 시크를 표현한 샤넬의 현대적인 감각은 형태적으로도 가장 단순하며 색채에 있어서도 과거엔 금기시 했던 검은 색으로의 검정색을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샤넬은 가정부(maid)의 유니폼 처럼 단순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⁸⁾ 일상적인 아이템으로부터 의복의 디테일을 끌어왔다(그림 4). 원색을 위주로 한 기존의 유행색에 반대하여 검은색을 과감히 여성복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같은 검은색이라도 소재에 따라 느껴지는 다양한 분위기를 잘 이용하여 낮에 입는 의복에는 울 소재를 사용한 반면 밤의 드레스를 위해서는 실크 크레이프, 새틴, 실크 벨벳 등을 이용했다.⁹⁾

옷에 여성의 신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맞추었던 것과는 반대로 변화하는 현대 라이프 스타일속에서 생활인,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여성들에게 옷을 맞추었다. 즉 자유와 현대성이라는 두가지 표현이 리틀 블랙 드레스를 통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20세기 모드가 향하고 있었던 방향, 즉 '보다 많은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옷의 대중화에 의해 검은색은 현대 대중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션 컬러가 되었다. 비록 샤넬이 리틀 블랙 드레스의 창시자로 남아 있기는 해도 동시대의 파투, 비오네, 몰리뉴 등도 이러한 작품을 발표하였고(그림 5) 뉴욕의 스테인 블레인(Stein & Blaine)은 샤넬보다 6개월 먼저 클래식 버전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⁰⁾

결국 이러한 사실은 디자이너 한 명의 천재적 발상 이라기 보다 당시 모든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단순함에 의한 기능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색이었던 검은색¹¹⁾이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현대 생활에 있어 대중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과 형태를 창조하는 수단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선구적 디자이너들의 안목이라고 볼 수 있다.

형태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색채적으로도 '없을색'을 이용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이었다.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게 형태와 색을 부여했으며 리틀 블랙 드레스는 낮의 의복으로도 그리고 밤의 드레스로도 소재에 따라 훌륭한 아이템이 되었다. 결국 여성 패션계에 있어 계급차를 제거하고, TPO를 수용하며, 자유와 현대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와 현대성의 요구에 의해 탄생된 리틀



<그림 4> 가정부의 유니폼과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16)



<그림 5> 비오네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Vionnet, p.36)



<그림 6>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욕
(출처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155)

블랙 드레스는 '10명의 여성 중 열명이 리틀 블랙 드레스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또 다른 리틀 블랙 드레스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리틀 블랙 드레스가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분위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 완벽하게 변한다. 가장 높은 시크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과 상관없이 수명이 길다' 라고 보도한 1944년 미국 보그지의 지적처럼 기능성과 대중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의복이며 자유와 현대성의 표현이라는 탄생당시의 의미와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새로운 미적 가치와 특성이 부여되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2. 성장기 : 유럽 스타일(우아함: elegance) 對 미국 스타일(기능적 세련미: smartness)

20년대 리틀 블랙 드레스 등장 이후 30년대는 클래식한 스타일과 초현실적 재미로, 40년대 미국의 기능적이고 기성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고, 1947년 디오르의 뉴룩은 블랙 드레스를 최고의 고품격으로 만들었다(그림 6). 특히 50년대까지 패션은 유럽이 주도 하였던 시기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유럽적 우아함과 시크를 대표하였다.

유럽 스타일이란 지방시와 디오르에 의한 X, Y, A 라인 그룹과 샤넬, 발렌사가가 주도한 좁고 스트레이

트한 그룹으로 대별되었다.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럽 스타일의 흐름 속에서 1950년대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특히 리틀 블랙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었던 리틀 블랙 햇트(little black hat)는 여성의 의상에 있어 하나의 정돈된 엘레강스한 모습이였다. 작은 검정 모자는 리틀 블랙 드레스 처럼 순수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이 시기 모든 여성들의 의복에 필수적이었다. 50년대의 유럽적 엘레강스는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가졌던 작은 검정 모자(Little black hat)와 조화되어 더욱 성숙하고 고상한 여성의 이미지(그림 7)였거나 혹은 오드리 햅번의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대표되었다(그림 8).

50년대의 패션이 매우 지적이고 세련되었던 것과는 달리 60년대의 패션은 새롭고 신기하고 흥미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리틀 블랙 드레스는 적격이어서 10명의 파티 참석자 중 9명은 블랙이라 할 정도로 검은색은 언제나 지배적이였다. 이와 같이 리틀 블랙 드레스는 유럽 스타일의 고상한 우아함을 만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세계적 대국으로 주목받은 미국은 이제 패션의 시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바로 미국 스타일로서의 기능적 세련미(smartness)의 표현이 그것이었는데 유럽의 고품격의 전통적 엘레강스의 귀족적인 이미지가



<그림 7> 50년대 리틀 햇트와 리틀 블랙 드레스 코트
(출처 : Balenciaga)



<그림 8> 오드리 햅번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Star Style, p.117)



<그림 9> 매리 퀴트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Fifty Years of Fashion, p.51)

아닌 기능성과 현대성, 새로운 자신감을 신선하게 불어넣는 스마트한 이미지가 리틀 블랙 드레스를 통해 잘 표현되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소형화(minimaturization)의 유행은 패션에 있어서 미니 스커트에 의한 디자인의 효과(stylistic effect)를 위한 것이었다.¹³⁾ 어떤 팝 그룹은 스스로를 '작은 얼굴들(The Small Faces)'이라고 불렀다. 록키 호러 쇼(The Rocky Horror Show)의 여주인공은 'Little Nell'이라고 자칭¹⁴⁾하듯이 소형화의 유행은 리틀 블랙 드레스의 '리틀'과 잘 부합되었다. 1959년 샤넬의 컴백 이후 리틀 블랙 캣테일 드레스는 유럽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패셔너블과 편안함 모두를 취하기 위해 샤넬은 인기가 있었다. 미국의 번성기 시절은 개인의 경제적 성장기였던 동시에 산업 기술력 향상의 시대였으며 매스 마켓 생산품을 증가시켰던 시기이다. 여성들은 가정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데 Mila Contini가 5000 years of Fashion에서 '하얀 칼라와 장갑, 진주목걸이로 완벽하게 장식하고 민크 솔을 걸친 소녀풍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거의 유니폼화 되었던 시기로 전세계에 퍼져있었다'¹⁵⁾고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60년대 뉴욕의 댄스 매니아들의 댄스 복장에서 과거의 크리놀린 형태의 드레스가 아닌 직선형의 단순하고 짧은 발랄한 느낌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유행했다¹⁶⁾.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little' 블랙 드레스는 60년대 미국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그림 9, 10) 재클린 케네디의 미국적이며 젊고 모던한 세련미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유행에 큰 몫을 하였다(그림 11). 젊은 분위기, 지적인 매력의 재클린 케네디의 미국적 분위기는 60년대 여성들의 선망이었다.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유행 경향을 결정짓기에 바쁜 동안, 미국에서는 재키 케네디로부터 자신들의 뮤즈(muse)를 찾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젊은 스타일은 대중들이 따라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와 검정색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움은 독특한 이미지를 보였다. 그 동안 유럽 스타일에 익숙해졌던 것과는 다른 미적 특성이 리틀 블랙 드레스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였다. 재키의 이미지를 미국 퍼스트 레이디로 적당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적인 정신을 반영한 그녀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과장된 장식과 꾸밈보다 실용적이며 단순한 패션으로 미국 정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성이 우아하게 표현되었고 스포티한 라이프 스타일에 개척시대의 모험정신이 반영되어 있음을 국민들이 감지했던 것이다.¹⁷⁾ 미국의 여성들은 미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미를 완숙히 구현하는 재클린을 통해 젊음, 현대성, 미국 스타일의 세련미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모방하기에도 수월했다. 결국 그녀가 애용한 리틀 블랙 드레스는 미국적 스타일, 즉 기



〈그림 10〉 매리 퀴트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Cutting Edge, p.79)



〈그림 11〉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은
재클린 케네디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7)



〈그림 12〉 펑크적 특징을 살린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93)

능미, 현대성, 세련미를 견고히 하는 하나의 문화상징이 되었다.

3. 성숙기 : 다양성 시대의 다면적 속성

70년대는 이전 시대만큼이나 리틀 블랙 드레스가 많이 선보이진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70년대 말과 80년대는 성공을 위한 드레스(Dress for Success)로서의 테일러드 슈트가 유행했는데 이는 리틀 블랙 드레스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 힘의 상징으로서의 단순한 검은색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다양한 매체의 발전은 패션정보의 전파를 빠르고 광범위하도록 했다. 그리고 패션은 후기 자본주의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하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되어 이전 시대 보다 많은 변형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70년대에는 복고적 취향의 성숙한 분위기의 리틀 블랙 드레스와 반항적 아방가르드한 분위기나 키치적 특성이 나타난다(그림 12). 80년대에는 글리츠 스타일이나 성공을 위한 파워 슈트의 지향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로열 리틀 블랙 드레스도 관심을 끌었다(그림 13). 도나 카란이나

캘빈 클라인으로 대변되는 80년대 이후 90년대에의 미국 스타일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이전의 단순함과 세련됨으로 도회풍을 리드하는 반면 다양화의 추세에 따라 정크나 팝, 핑키한 분위기나 성적으로 도발적 이미지를 모두 표현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되었다(그림 14).

80년대 경제성장으로 패션에서는 험라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의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여성들은 아제딘 알라이아, 장 폴 고틀리에, 아이작 미즈라히, 소니아 리키엘 등의 작품에서는 매우 작고 단순하거나 때론 스트레치성이 강한 소재의 블랙 드레스가 노출과 함께 많이 선보였고 여성적 에로티시즘,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스타일이 전개되었다(그림 15, 16). 한편으로 일본 디자이너들의 파리 진출 성공으로 동양적 검정색이 아방가르드하게 유행되었고 심지어는 모스키노(Franco Moschino)는 리틀 블랙 드레스에 테디 베어 인형을 가득 메달아 장식(그림 17)하는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개성과 작품 영역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를 내놓고 있다.

1990년대에는 세기말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모든 옛 것들이 새롭게 다시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미니멀 열풍이 유행을 일으켰다(그림 18). 또한 칼 라거펠드의 뉴 밀레니움 컬렉션에서는 리틀 블랙 드레스가 이브닝 드레스로서 새롭게 표현되기도 했다. 따



<그림 13> 다이애나의 로열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92)



<그림 14> 등이 노출된 심플한 80년대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Crosscurrents p.193)



<그림 15> 소니아 리키엘의 리틀 블랙 드레스, 1989년
(출처 : Women of Fashion, p.162)

라서 패션에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였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의 가치는 포멀한 클래식, 키치, 미니멀, 해체적 장르에 상관없이 표현되었다(그림 19, 20). 도나 카란은 “리틀 블랙 드레스는 여성들의 의복의 기본이다(The little black dress is the foundation of a woman's wardrobe)”¹⁹⁾라고 단언하는 것처럼 시대에 관계없이 자리잡은 아이템(timeless item)이 되었다.

결국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자유와 현대성의 표현으로 시작된 탄생기를 거쳐 유럽적인 고품격의 엘레강

스와 미국적인 기능미와 세련미를 표현하는 등 현대 여성의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정착하여 어떠한 TPO도 수용할 수 있는 의복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리틀 블랙 드레스가 다면적 속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아이템이 되어 리틀 블랙 드레스만이 가질 수 있는 미적 특성에 의해 여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에서 7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대 여성 의복의 공통적 기준(common denominator)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 아이작 미즈라히의 리틀 블랙 드레스, 1995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88)



<그림 17> 광고를 위한 모스키노의 작품
(출처 : Icons of Fashion, p.41)



<그림 18> 미니멀한 리틀블랙 드레스, 후세인 살리안
(출처 : Vogue, Korea, 2000, 12, 별책)



<그림 19> 후세인 살리안
(출처 : Vogue, Korea, 2000, 12, 별책)



<그림 20> 마틴 싯봉의 80년대풍 드레스, 2001 SS
(출처 : Vogue, Korea, 2000, 12, 별책)

III. 리틀 블랙 드레스의 미적 특성과 이미지

1. 세련미와 현대적 감각을 통한 정체성 부여

패션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의복에 있어 색채는 가장 큰 표현적 요소이다. 개인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며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만드는데 효과¹⁹⁾를 주기 때문에 이미지 창출에 적극 이용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지 메이킹은 선거 전략의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의 이미지도 인구에 회자되었다.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변신(그림 21, 22)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등 이미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데도 중요²⁰⁾하며 또한 남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을 함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리틀 블랙드레스가 가지는 미적 특성과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가 검은색이 주는 이미지이며 둘째가 형태가 주는 이미지이다.

검은색에 대한 미적인 특성과 이미지는 검은색을 선택하는 이유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아티스트처럼 보이기 위해, 동양적 신비감을 주기 위해, 히피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언제나 냉정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그리고 喪中임을 알리기 위해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반면에 유혹의 색으로도 다른 색보다 검은색을 선호하고 있는 데 여성의 신체를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거나 그러한 느낌을 착용자가 갖도록 해주는데 있을 것이다. 대부분 여성들은 날씬하다고 느낄 때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며 검은색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지적과 '심리적으로 검은색 드레스는 당신이 뚱뚱하다면 날씬하고 작게 보이게 하고 당신이 작은 체구이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이도록 한다'²¹⁾고 말한 디자이너 빌 블라스의 표현을 본다면 검은 색의 무한한 속성을 알 수 있다.

블랙은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빛의 자극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한때 블랙은 색채가 아니라고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빛의 자극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적극적인 시각을 주므로 다른 색에 못지 않게 강한 느

낌을 주는 색이다.²²⁾ 그러나 19세기의 영국의 댄디에 의한 멋쟁이 남성복으로 정착하였고 프랑스에서는 검정이 흰색과 함께 시크(chic)한 색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검정의 미가 새로운 멋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리틀 블랙 드레스가 표현하는 미적인 문제는 앞서 열거한 블랙의 일반적 개념과는 분명 다르다. 우선 현대패션의 검은색의 도입은 '현대성 = 검은색'이라는 도식이 가능할 정도로 모더니티의 상징처럼 되어왔다. 흑인예술의 도입으로 예술가들은 검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검정의 특성이 아르데코의 단순미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모더니즘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이해되었다.²³⁾ 검은색이란 표준화의 상징이면서 경제적으로 완벽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색채 아이템이다.²⁴⁾ 그 동안 서구문화에 있어서 검정색의 상징적 의미는 부정적 의미²⁵⁾였지만 현대로 들어와 패션에 있어서 절대적 시크와 모던한 표현의 이미지가 되었다. 이러한 시크와 모던 표현의 미적 특성은 아르데코 이후부터 미니멀 패션에 이르기까지 리틀 블랙 드레스가 선호되어온 이유가 된다.

리틀 블랙 드레스의 시크를 의미하는 검은색이 주는 특성은 입을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가령 50년대 파리의 비트 니크들의 의복 행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비트 니크의 차림은 검은 스웨터, 검정 바지로 대표되었는데 파리에서 생겨나 곧 지식인, 예술가, 학생들의 기본 의상이 되었고 그들의 표현목표는 '자기 정체성'이었다. 그들의 정체성의 표현의 수단이 검정색이었다. 패션은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룩(look)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에서 비트 니크 패션은 영향력이 있었다. 새로운 가치와 전통을 확립하고 도전하는 이들의 차림은 블랙 드레스, 슬림 블랙 팬츠, 블랙 터틀 니크, 블랙 타이츠, 납작한 신발, 블랙 베레모 등 검정색을 통한 하나의 의복 코드를 완성했다.

정체성 표현으로 검은 색이 사용된 예는 보헤미안 블랙²⁶⁾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50년대 말 가스펠 송의 열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 롤 열풍 속에서 자신들을 표현하였던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서도 나타난다. 과거에서부터 '치장' 해 온 진부한 여성스러움을 거부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 검정색은 그들의 의식의



<그림 21>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힐러리 클린턴
(출처 : 보그, 2000, 12 표지)



<그림 22> 상원의원으로서의 힐러리 클린턴
(출처 : 디자인문화비평, p.54)



<그림 23> 베르사체의 모던한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Understanding Aesthetics, p.84)

표현이었다. 이러한 고유한 방향 설정에 리틀 블랙 드레스는 적합한 아이템이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가 지속적으로 애용되는 원인에는 이상과 같이 검은색이 갖는 힘이 있다. 시간과 연령을 초월하여 시크(chic), 패셔너블성, 놀라운 편안함, 개성 표현 등 다른 의복 아이템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대가 변해도 리틀 블랙 드레스의 변하지 않는 특성이란 바로 착용자의 정체성(identity)을 확실히 제공한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적 외형(modern appearance)의 대표적 예로 리틀 블랙 드레스가 지목되고 있다. Fiore와 Kime는 「미학의 이해(Understanding Aesthetics)」에서 Women's Wear Daily에 소개된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외형의 예를 지적하고 있는데 심플한 라인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모던의 대표적 상징²⁷⁾으로 꼽고있다(그림 23). 그리고 Ellen Melinkoff의 지적대로 여성들은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주변의 여성들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검은색의 힘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오드리 헵번이 그랬던 것과 같다.²⁸⁾

다음으로 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글래머 패션과는 다르게 세련됨과 자유, 현대를 표현²⁹⁾하는 단순성이 장식적 경향이나 과장된 스타일보다 가치 있는 고품격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경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이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로서의 로맨틱 분위기 보다 오히려 매력적이고 샤프하고 민첩한 인상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³⁰⁾ 따라서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글래머 룩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리틀 블랙 드레스는 20세기 이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분명한 여성 패션으로 존재했다. 여성들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창조되어 20세기 동안 다양한 패션의 조류속에서도 세련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이템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리틀 블랙 드레스는 검정색과 단순성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갖게 한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입는 사람의 창조성과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된다. 반면 한번 개성을 향한 선택으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완벽한 보석으로 세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거나 단지 그냥 그것을 입음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표현하게 해준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적극적, 수동적 그리고 실제적, 장식적의 경우 언제나 전자인 적극성과 실리성이 해당되어³¹⁾ 현대적 세련미의 대명사로 꼽히는 아이템인 동시에 착용자의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매개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명확한 윤곽에 의한 강한 전달력

의복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경우 검정색은 강한 메시지를 갖는다. 마치 우리가 정확한 실루엣을 파악하기 위해 의복 내부의 디테일을 검정으로 채우는 것과 같다. 1938년 에르테(Erté)의 'Black Velvet' 이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검정은 윤곽의 실루엣을 가장 정확하고 강하게 표현해준다(그림 24).

20세기 후반의 블랙 패션에 나타난 미의식은 미니멀리즘, 댄디즘, 허무주의, 금욕주의, 에로티시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³²⁾ 또한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으로 볼 때 검은색은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본질 추구의 한 수단으로서 애용되기도 한다.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디자인 자체를 단순히 하거나 옷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작게 하거나 색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미술에 있어서도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인 특성으로 꼽히는 것이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본질의 추구이며 명확한 형태와 뚜렷한 경계선의 명료성, 엄격한 순수주의로서 애매함을 없애려는 의지이다.³³⁾ 단순하고 작은 의복에 절제된 색채의 사용을 표현하는데 이는 인간의 내부적 정신세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형적 특색이 단순화를 지향하게 되는 경향을 의미할 수 있으며 동시대의 조형 양식으로서 미술뿐 아니라 패션에서도 같이 표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그림 24> 에르테의 일러스트 작품
(출처 :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111)

검은색이 형성하는 뚜렷한 윤곽선은 미니멀리즘의 명료성과 연관되어 검은색의 타이튼한 형태는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디자이너가 컬렉션에서 자신의 작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경우 검정색을 이용하는데 이는 검정색이 다른색 보다 형태를 강조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외부의 환경과 신체, 그리고 의복간의 경계성을 의미하는데 닫힌 영역(closed boundary, 한정적)의 표현은 분명 인체와 환경 그리고 의복의 형을 강조한다.³⁴⁾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명확한 윤곽을 가진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할 때 주로 검정색을 사용하여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주었다. 그는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컬렉션의 전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60년대 메리 쿼트는 미니 스타일에서도 검은색을 사용하여 조형적인 측면을 강하게 하였다(그림 9, 10).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사용에도 검은색을 사용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주었다. 가령 60년대의 비치는 소재, 광택 소재, 반짝이는 소재 등은 모두 검은색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다.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의 가장 효과적 이미지는 입는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화려한 색상의 옷처럼 첫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전달력과 명확한 실루엣으로 옷을 입은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검은색의 옷은 밝은 색상의 여성보다 과장 없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핑크는 권위를 표현하기 힘들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입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 산만하게 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집중시킨다. 리틀 블랙 드레스의 효과는 또한 그 형태나 소재에 있어 잘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신비감을 알리며 숨어있는 디테일 보기 위해 신체적으로 더 가깝게 남성을 끌도록 하는 힘이 있다.

결국 검은색은 강한 전달력과 명확한 윤곽을 표현하는 조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20세기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애용된 색채라 하겠다. 특히 형태가 단순하고 작을수록 즉 리틀 블랙 드레스와 같은 디자인일 때는 검은색의 생명력은 더욱 살아난다고 하겠다.

3. 유혹과 금기의 이중적 가치

블랙 아트, 블랙 매직, 블랙 나이트, 블랙 리스트 등 블랙이 의미하는 것은 미스터리, 마술, 보이지 않는 죄 등 부정적인 것들이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1918-1920 년경에 즉 1차 세계대전 시기의 상복으로 나타났다. 이후 생활이 변할 때, 리틀 블랙 드레스는 유희적인 패션 아이템이 되었으며 그 중 시크에서부터 섹시한 이미지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가장 강렬한 인상적인 검정색의 장식에 없는 의복으로 매력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도의 감성을 자아낸다.³⁶⁾ 특히 소재에 따른 효과는 다른 색채 보다 크게 작용하는데 검정 벨벳의 경우에는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³⁶⁾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프로스트의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 검은 벨벳차림의 게르만트 부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신비성, 위엄, 자애, 섬세함, 우아함을 표현했다³⁷⁾는 데서도 알 수 있다.

1913년에 출판된 Edith Warton의 순수의 시대(The Age of Innocence)에서 ‘누군가가 밖에 나갈 때 검은 색 새틴을 입은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³⁸⁾는 질문은 검은 옷은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검은 옷은 일반적으로 과부

를 상징하여 즉, 순수를 잃은 사람은 性的 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인 호기심과 매력이 있다. 따라서 상복과 같은 검정과 노출미가 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바로 유혹의 유니폼이 된다(그림 25). 1926년 처음 리틀 블랙 드레스가 선보일 때도 여전히 상복으로 그리고 금지된 유혹 즉, 성숙한, 경험있는, 섹스의 암호였다.

이러한 순수와 유혹의 이중적 가치는 영상매체 특히 최근의 영화에서 잘 표현된다. 리틀 블랙 드레스를 착용한 미모의 여배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겪는 모험 속에서 순수하고 성숙하며 그러나 성적 유혹을 은근히 표현하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역할은 중요한 아이템으로 사용된다(그림 26). Ellen Melinkoff는 「What We Wore」에서 50년대를 회상하는데 ‘우리는 검정으로 안정을 느낀다. 이것은 성적 매력과 성인을 상징한다. 소녀들에게 검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검은색을 입으면 할머니 같아 보인다고 말하고 파스텔 톤의 옷을 입도록 했다. 그들은 블랙이 갖는 숨겨진 힘을 이미 알고 있다.’³⁹⁾라고 지적하면서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유혹의 힘을 설명한다.

여성의 매력을 강조하는데 있어 리틀 블랙 드레스만큼 성공적인 아이템은 없었다. 검은색의 리틀 블랙



<그림 25> 돌체 앤 가바너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10 Years of Dolce & Gabanna, p.61)



<그림 26> 영화 니키타의 장면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119)

드레스는 가장 카멜레온적이며 검정 새틴은 섹스 어필에 강하고 검정 레이스로 된 것은 로맨틱하고 벨벳일 때는 귀족적이고 관능적이며 시스루의 검정 망사로 된 것은 천박하기까지 하다.

결국 리틀 블랙 드레스는 금기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를 깨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유혹하는 매개로서의 이중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슈미즈(chemise)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을 기초로 한 검은색 여성용 의복인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자유와 현대성의 표현을 표방하며 1920년대 샤넬, 파투 등을 필두로 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탄생되었고 이후 현대 여성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이어져 왔다.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속에서 생활인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여성들의 취향에 알맞은 의복이었다. 소재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했던 리틀 블랙 드레스는 탄생기에서는 계급의 차를 제거하고 TPO를 수용함으로써 자유와 현대를 상징하는 미적 특성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성장기로 접어들어서는 일반 여성 패션의 흐름을 그대로 표현하였는데 특히 엘레강스를 적절히 표현했던 50년대 유럽 스타일과 기능적 세련미를 표현했던 60년대 미국 스타일로 구별되어 볼 수 있었다. 지방시와 디오르, 발렌사가, 샤넬에 의한 유럽적인 시크와 엘레강스는 고품격의 세련된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60년대의 팝과 미니의 열풍, 콤팩트한 소형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의복에 진정한 '리틀'로서의 리틀 블랙 드레스의 인기를 몰아왔으며 미국의 성장과 미국의 개성적 아름다움으로서 젊음, 진취, 합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재키 케네디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미국 스타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70, 80년대 이후 후기 자본주의의 생산 체제하에서는 집단에 대한 소속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보다는 개개인의 개성 표현에 역점을 두게되어 패션에 있어 다양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때로는 모던하고 엘레강스하게 때로는 핑키하고 야방 가르드하게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결

국 리틀 블랙 드레스 탄생이후 70여년 이상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여성들의 기본적인 의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애용된 리틀 블랙 드레스의 미적 특성과 그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검정색과 단순한 형태미는 시간을 초월한 시크함과 현대성을 표현하여 착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시켜주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는 자신의 주장과 개성을 확고하게 표현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리틀 블랙 드레스가 모던과 포스트모던 패션의 외형적 특성의 구분에 있어 현대패션의 대표적 상징성으로 채용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둘째 검은색이라는 색채가 형태를 한정시키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단순화를 통한 본질추구의 수단이 되어 강한 전달력과 명확한 윤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복의 뚜렷한 윤곽선을 제공하여 명료성을 주게되며 타이트했을 때는 신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조형적으로 시선을 이끄는 특성이 있었다.

셋째 전통적으로 상복의 색이 가지는 금기성의 이면에 있는 유혹의 본질이 결부되는데 리틀 블랙 드레스에서는 이러한 금기와 섹시함이 공존하게 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에 신체의 노출이 함께하면 성숙미와 섹시미의 상징을 갖게 해주며 순수미와 결부되어 검정색이 가지는 숨겨진 유혹의 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활동성, 민첩성, 세련미, 시선 집중, 정체성의 표현, 순수미, 에로티시즘의 표현 등 현대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소재, 질감,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적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는 그 동안 현대 패션의 시작으로 혹은 샤넬의 작품으로 국한되어 조명되었던 리틀 블랙 드레스의 의미를 보다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70여 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애용되어온 단일 아이템으로서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갖는 미적인 특성은 무엇보다 현대 여성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도록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속성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의 가변적 속성은 바로 검은색이 가지는 특성과 형태

적으로 단순함 속에서의 무한한 가치 그리고 소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 감성적 특성이 모두 고려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현대 여성들이 의복을 통해 얻고자하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Georgina O'har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1986, London, Thames and Hudson, p. 163.
- 2) 앞 글.
- 3) 이미숙,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1997,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조규화, 1920년대 가르손의 출현과 그 복식, 1984, 한국의류학회지, 8, pp. 19-30.
_____,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1991, 한국의류학회지, 15, pp. 381-392.
이민경, 한명숙, 유니섹스 모드에 반영된 Dualism에 관한 연구, 1995, 복식문화연구, 3, pp. 277-291.
김은덕,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1995, 복식, 15, pp. 157-176.
- 4) Gerda Buxbaum(ed),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1999, Munich, London, New York, PRESTEL, p. 41.
- 5) Amy de la Haye, Shelly Tobin, CHANEL : The Couturier at Work,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1994, p. 42.
- 6) 이미숙, 1997, p. 30.
- 7) Gerda Buxbaum(ed), 1999, p. 40.
- 8)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1992,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57.
- 9) de la Hay & Tobin, 1994, p. 42.
- 10) Amy Holman Edelman, The Little Black Dress, 1997, London, Aurum, p. 25.
- 11) 조규화, 박혜원, 1991, pp. 45-47.
- 12) Edelman, 1997. p. 56.
- 13) Bevis Hillier,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New York, 1983, E.D. Dutton. Inc. pp. 109-170.
- 14) 앞 글
- 15) Edelman, 1997, p. 60.
- 16) Joel Lobenthal, Radical Rags: Fashions of the Sixties, 1990, New York, Abbeville Press, p. 96.
- 17) 김성복, 모피, 히피, 절면피: 패션과 정치, 디자인 문화비평 2, 서울, 안그라픽스, 2000, p. 52-53.
- 18) Edelman, 1997, p. 140.
- 19)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5, pp. 49-50.
- 20) 김성복, 2000, pp. 49-54.
- 21) Edelman, 1997, p. 41.
- 22) 파버 비렌(n.d), 색채심리, 김화중(역), 서울, 동국출판사, 1995, pp. 235-236.
- 23) 조규화, 박혜원, 1991, pp. 382-385.
- 24) Gerda Buxbaum(ed), 1999, p. 27.
- 25) 조 필교, 정 해민. 패션 디자인과 색채. 전원문화사. 1997. p. 81.
- 26) Alison Lurie, 유태순(역),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p. 180.
- 27) Ann Marie Fiore & Patricia Anne Kimle, 1997, p. 84
- 28) Melinkoff, Ellen, What We Wore : An Offheat Social History of Women's Clothing, 1950 to 1980, NY, Quill, 1984, p. 34 .
- 29) David Bond, Glamour in Fashion, 1992, London, Guinness Publishing, pp. 168-170.
- 30) 앞 글.

- 31) Gerda Buxbaum(ed), 1999, p. 41.
- 32) 송명희,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1996,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 58.
- 33) 케네스 베이커, 김수기(역), 미니멀리즘, 1993, 서울, 열화당, p. 16.
- 34) DeLong, The Way We Look, 1987,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재인용) Ann Marie Fiore, Patricia Ann Kimle, 1997, New York, Fairchild, p. 145.
- 35) Alison Lurie, 유태순(역), p. 164.
- 36) 정소영, 벨벳을 사용한 복식조형에 관한 연구-14세기 이후 서양복식사에 사용된 점모직물을 중심으로-, 1996,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 75.
- 37) 조규화, 복식미학, 1993, 서울, 수학사, p. 346.
- 38) Edelman, 1997, p. 36.
- 39) Melinkoff, 1984, pp. 34-35.